

단풍 응원 받으며 가족·동호인 즐겁게 달렸다



거북이 행진 참가자들이 쉬엄 쉬엄, 주변 경치도 감상하면서 온가족이 함께 주말 나들이를 나선 듯 느긋한 표정으로 도로를 달리고 있다.

1천여명 참가 은륜의 대향연 만끽

호남지역 최대의 은륜의 향연이 광주에서 화려하게 펼쳐졌다.

2009 그린 광주·전남 자전거 축제(광주시·전남도·광주일보사 주최, 광주사이클연맹·스포박스 주관)가 14일 광주 금호패밀리랜드에서 싸늘한 가을날씨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동호인과 가족 등 1천여명이 참가해 열띤 라이딩을 펼치면서 늦가을 주말 오전을 뜨겁게 달구었다.

특히 다양한 색상의 유니폼을 갖춘 참가자

들의 끝없는 자전거 행렬은 오색으로 물든 주변의 산·들과 어우러져 장관을 연출했다.

로드레이스와 거북이행진 두 종목으로 열린 이날 대회는 가족·동호회·친구·연인·직장 동료 등 다양한 계층의 수많은 시민들이 참가해 친목과 화합을 다진 진정한 시민축제의 장이기도 했다.

이날 30여개의 자전거 동호회에서 참가해 숨가쁜 레이스를 전개한 로드레이스에선 남자 부문에 이정선(첨단mtb)씨, 여자 부문에

전희정(광산mtb)씨 그리고 단체에선 광산mtb A팀이 각각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이날 이정선씨는 패밀러랜드 주차장을 출발해 용산교차로~효령삼거리~단지마을 입구~쌍교삼거리~국립 5·18묘역 입구~단지마을 입구~효령삼거리~용산교차로를 거쳐 패밀러랜드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22km의 레이스에서 39분28초114로 2위 김희권(광산mtb·39분28초234)씨를 간발의 차로 제치고 1위로 골인했다. 3위는 39분28초453을 기록한 김상일(영진mtb)씨가 차지했다.

여자부에서는 전희정(광산mtb)씨가 44분 15초283을 기록, 2위 박현선(영진mtb·44분

20초626)·3위 김인란(프로바이크·46분48초863)씨를 여유있게 따돌리고 제일 먼저 골인선을 통과했다.

여자선수 1명을 포함해 5명이 출전한 단체전에선 광산mtb-A팀이 가장 좋은 기록으로 1위의 기쁨을 맛보았으며, 첨단mtb·풍안mtb·영진mtb·프로바이크팀이 그 뒤를 이었다.

이날 대회 로드레이스를 진행한 박일우(51·전 국가대표 감독) 심판장은 "특히 코스도 지루하지 않고 무난했으며 사고 한건 없는 안전대회였다는 것이 더 의미있었다"고 평가했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사진=광주일보 사진부

부문별 우승자

“체력 안배 막판 스피트 적중”

남자부 이정선씨

“생각보다 바람이 많이 불어서 라이딩이 힘들었지만 욕심 부리지 않고 앞주자만 따라가면서 체력 안배를 했던 것이 막판 스피트를 할 수 있었던 큰 힘이 됐습니다”

로드 레이싱 남자부에서 우승을 차지한 이정선(28·첨단mtb)씨가 담담한 표정으로 우승 소감을 밝혔다.

또한 이 씨는 “이번 대회가 올해 마지막

라이딩이었는데 유종의 미를 거두게 돼 더욱 의미있는 대회였다”고 덧붙였다.

올해로 동호회 활동이 4년째라는 이 씨는 “그간 참가했던 여느 대회 보다 이번 대회가 주변 경관이 좋은 코스였으며, 난이도도 평이해 부담없이 레이스를 펼쳤다”며 대회 코스에 대한 칭찬도 아끼지 않았다.



“첫 출전 대회 우승...실감 안나”

여자부 전희정씨

“첫 대회 출전부터 여자 부문 우승을 하다니 감사할 뿐입니다.”

“2009 그린 광주·전남 자전거 축제” 로드 레이싱 부문 여자 개인전 우승은 22km를 44분 20.626초로 주파한 전희정(40·광산Mtb)씨가 차지했다.

전씨는 “경륜 선수로 활동한 남편의 권유로 지난 6월부터 본격적으로 자전거를 타

시작했는데 첫 대회에 우승할 줄은 몰랐다”며 “여자 개인부에서 우승할 수 있었던 것은 일

정량의 훈련을 꾸준히 해온 점과 남편의 격려 덕분”이라고 말했다.

전씨는 자신이 속한 광산Mtb 소속 회원들과 적어도 매주 4차례 이상 자전거를 타면서 이번 대회를 준비해 왔다.



“훈련으로 다진 팀워크가 원동력”

단체부 광산mtb A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꾸준한 훈련을 통해 자전거 축제 단체 우승이라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2009 그린 광주·전남 자전거 축제” 로드 레이싱 단체 부문 우승의 영예는 광산mtb A팀에게 돌아갔다.

광산mtb를 단체인 우승으로 끌어올린 주인공은 바로 나관수(48)·김희권(41)·전희정(여·40)·김희성(46)·김우철(40)씨 등 5



명의 팀원. 광산mtb는 여자 부문 우승, 남자 부문 2위와 5위를 비롯한 주요 상을 휩쓸었다. 광산mtb는 열심 회원 수만 40명을 넘어서는 등 규모와 열의 모두 광주·전남지역 최고 수준의 자전거 동호회로 알려졌다.

이색 참가자

“자전거 타며 건강·금슬 다져요”

최고령 신평식·심오현 부부

“가족이 함께 건강을 지키고 정을 나누기 위해 자전거 축제에 참가했습니다.”

광주시 북구 일원에서 지난 14일 치러진 ‘2009 광주·전남 자전거 축제’에서는 칠순이 넘는 나이에 노익장을 과시한 노부부가 눈길을 끌었다. 화제의 주인공은 ‘거북이행진’ 부문에 참가한 신평식(78)·심오현(여·76)씨 부부. 50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



는 수년 전부터 자전거 타기를 함께 즐기며 건강한 몸과 부부 간의 금슬을 유지해 오고 있다고 소개했다.

“장애인을 올림픽 목표로 달린다”

외팔 라이더 이진기씨

한쪽 팔로만 핸들을 잡고 끝까지 완주한 인간 승리의 라이더도 있었다. 로드 레이싱 부문에 출전한 이진기(43·레팍mtb)씨가 그 주인공이다.

10년 전 전가사고로 왼쪽 팔을 잃게된 이씨는 “사고를 당했을 당시 충격이 너무 커

무기력한 시간들을 보냈지만 주위의 권유로 자전거를 배우면서 희망과 활력을 되찾았다”면서 “꾸준히 훈련해서 국가대표가 되어 장애인올림픽까지 도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자전거 타는 사람 많아 놀랐어요”

남아공 출신 탐린 영씨

대회장에선 주위의 시선을 끌어온 금발의 여인이 있었다.

이번 대회 거북이 행진에 출전하기 위해 라이딩 복장을 갖추고 나타난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 탐린 영(Tamlyn Young·광주 월곡동·31)씨. 현재 초등학교 원어민 교사다.

탐린 영씨는 “자전거 대회를 처음 참가해 신기하고 흥분도 된다. 그리고 내가 직접 출전하게 돼 매우 기쁘다”면서 “광주에도 이렇게 자전거를 즐겨타는 사람이 많은 줄 몰랐다”며 대회 소감을 밝혔다.

/서승원·김형호기자 swseo@kwangju.co.kr



오색으로 물든 늦가을 주말 오전, 로드레이스 참가자들이 붉게 물든 단풍나무들의 응원을 받으며 힘찬 질주를 펼치고 있다.



아찔 점프 묘기 이번 축제 자원봉사자로 참가한 전남대 노란자전거 팀이 대회 식후 행사에서 누워있는 사람들을 뛰어넘는 자전거 묘기를 선보이고 있다.



아빠와 함께 아빠와 함께 거북이 행진에 참가한 어린 소녀가 마냥 즐거운 표정으로 페달을 밟고 있다.



추위 녹인 축하공연 거북이 행진 출발 전 스포츠 댄싱팀이 멋진 연기를 펼치고 있다.